

노을 빛 무지개

김성자 막달레나

익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새벽녘에 빠르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하루의 임무를 마치고 서쪽 하늘에 비치는 석양 역시 아름답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어 열정을 불태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봉사하며 살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인생의 수많은 간이역을 거쳐 이제는 종착역에 다가가는 동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나의 열정을 쏟아 불태울 수 있다면 힘없고 병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요, 행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시작한 일이 바로 익산 성모병원에서의 호스피스 봉사활동이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6년이 되었다. 정확히 2006년 7월 6일 익산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하고 즉시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하여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중 가장 마음 아린 일은 49세 된 젊은 목사 사모인 유방암 말기 환자였다.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해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 가는 모습에서 대신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었던 안타까운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생생하게 떠오른다.

성모병원에서의 호스피스 봉사활동은 2년이 되었다. 부지런히 아침 일을 마치고 기도와 함께 하느님의 향기 마음속에 가득 담아 집을 나서노라면 등골에 젖어드는 땀방울을 온몸으로 느끼며 병원에 도착한다. 입원실에 들어서면 간병인과 간호사들과의 만남으로 미소 지으며 반갑게 먼저 인사한다. “평화를 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인사하고 병실에 들어서면 볼 일 보시느라 어른들에게

서 나는 향기(냄새)가 보통이 아니다. 어느 때는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다. 내가 담당한 어르신은 94세 여자 김○○어르신으로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시다. 한 달에 한 번씩 피 주사를 맞으러 원대병원에 다녀오시는 외에는 古時調(고시조)도 읽으시고 詩(시)도 쓰신다. 시를 써서 수녀님을 주신다. 수녀님이 정리해서 게시판에 붙여 놓기도 하고 호스피스 카페지기가 가져다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한다. 또 칼라로 사진까지 넣어 프린트를 해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신다. 공무원 생활도 하셨고 충기도 좋으셔서 옛날 일들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젊으셨을 때 이야기 나오면 그칠 줄을 모르신다. 일주일 후에 만나 볼 때마다 자꾸 작아지는 걸 느낀다. 팔다리, 어깨를 어루만지면 살갓죽만 있으시다. 의지도 대단하시고 총명하시다. 기도 할 때면 움푹 들어간 눈에서 눈물이 맺혀 흘러내리면 나도 함께 눈시울이 뜨거진다. 눈물을 닦아드리며 꼭 안아 드리곤 한다. 지금은 정이 들어 어느 때는 보고 싶기도 하다. 찾아가는 요일이 아니어도 얼른 가서 뵙고 온다.

어느 날은 배도 아프고 밥맛도 없어 죽을 억지로 드신다며 묵은 김치 국물을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옛날분이시라 짠 것이 입에 길 드러져짹짹한 것이 생각 나시는 것 같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은 금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잡수고 싶어 하시는 걸 떼지 못해 같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라하신다. 속이 편안하다고 하신다. 하루는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와 성모 동산에 올라갔다. 별은 뜨거웠지만 아주 좋은 늦은 봄날이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 머금은 기분이 한

결 좋아 보이신다. 그늘진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푸른 나무들과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질문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들꽃도 꺾어 꽃다발도 만들고 토끼풀을 꺾어 반지, 시계, 목걸이도 만들어 채워 드렸다. 기뻐하시며 흡족해 웃으시는 모습에 내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하느님의 샘물이 물동이에 가득 차 기쁨과 행복이 넘나든다. 질문도 하고 어르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 드리기도 하며 시도 낭송 해 드리고 글도 준비 해 가지고 가서 읽어 드리기도 하면 감동 하신다. 옛날 노래와 성가도 불러 드리면 따라하신다. 오카리나도 불러 드릴 때는 살며시 눈을 감고 감상하시는 듯하다. 아마 젊으셨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시나보다. 다음엔 기타를 가져와 기쁘게 해 드려야지 내 마음속에 약속을 해 본다. 어느 날 엄마와 딸로 손가락 걸며 약속하였다. 이제는 정이 깊어 아침에 병실에 들어서면서 엄마 딸 왔어요. 인사 하면 응, 딸 왔어? 하신다. 얼굴을 어루만져 드리고 “우리 엄마 아프고 정신을 놓으셔도 하늘나라 가서 기도 해 드리고 장례 일에도 함께 할게요” 했더니 나는 선산이 남원인데 어떻게 와! 하신다. “걱정

마세요 엄마인데 제가 가야죠 갈게요” 하니 눈물이 글썽이신다. 눈물을 닦아 드리면서 생각하니 내가 괜히 약속을 했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인데,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이 편안해 하시고 좋아 하시는 것 같아 잘 한 것도 같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 여러 말씀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떠나야 하는지 교육받은 대로 당부 말씀도 나누었고 어르신도 잘 받아드리시는 표정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힘없고 병든 어르신들을 보노라면 서쪽에 지는 해처럼 서글픔과 아픔이 밀려오지만 나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기쁘고 행복해 하시면 그것만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노을빛 무지개로 아름답게 수놓아 하느님께 돌려 드리고 싶다. 오늘도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불러본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하련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 손 모아 그분께 간청해본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달란트,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같고 닦아 배운 것을 고운 색깔로 엮어 무지개 빛 만들어 당신께 봉헌하게 하소서. 순례의 길이 끝나고 마침표를 찍는 날 아버지 품에 안겨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